

금융

Sector Issue Brief

2026. 05. 29

Check Point

-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유력
- 은행/보험 수익성과 건전성에 긍정적
- 증시호조가 유동성 둔화 우려를 상쇄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융주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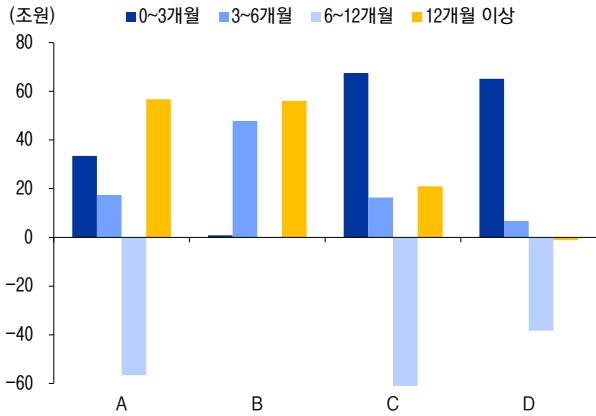
금통위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 ▶ 전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2.50%로 동결했으나 최근 반도체경기 호조와 유가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각각 2.6%, 2.7%로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면서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
- ▶ 금통위가 공개한 점도표(6개월 후 금리전망)에 따르면 총 21개의 점 가운데 10개가 3.0%, 7개가 2.75%에 찍혀 있음. 한은 총재가 성장, 물가, 환율, 부동산 등 고려시 '갈 길이 명확하다'고 언급하는 등 하반기 한두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금융업종별 영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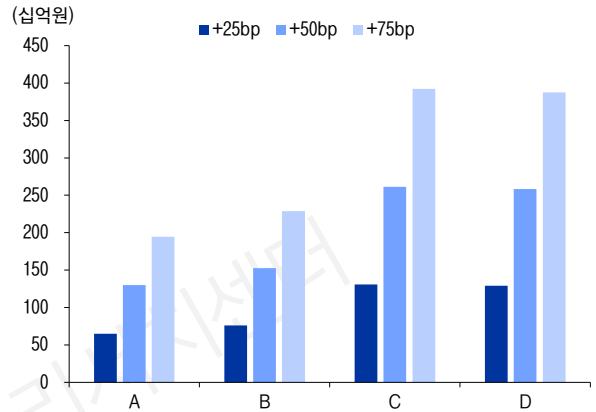
- ▶ 은행: 25bp 금리인상에 따른 주요은행의 최초 1년간 이론적인 이자이익 증가 폭은 평균 1,000억원 수준이며 NIM 영향은 +2.5bp 내외로 파악됨. 0~6개월 금리감응갭이 큰 폭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 이자이익 증가 영향은 최초 6개월 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 1분기 은행권 NIM은 평균 3bp 상승했으며, 2분기에는 조달비용 상승 영향으로 NIM 상승 폭 축소가 예상되나 하반기 금리인상 단행시 NIM 상승 폭은 재차 확대될 전망. 금리인상에 따른 대손부담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경기전망 개선이 병행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보험: 금리인상은 신규 투자수익률 제고와 CSM 배수 확보, 킥스비용 상승 측면에서 수익성과 건전성에 긍정적 요인. 금리인상 초기에는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연속적 금리인상이 진행될 경우 보유이원이 상승. 과거 대비 보험사의 부채 듀레이션갭이 축소되고 일부 회사는 오버매칭을 보이고 있으나 부채할인을 강화와 CSM 확보를 위한 보험부채 만기확대 추세를 감안하면 금리인상 환경은 자본안정성에 긍정적 영향. 50~100bp 금리인상시 대형생보사 기준 킥스비용은 10%p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됨
- ▶ 증권: 물가상승을 동반한 금리인상에 따른 실질유동성 둔화 가능성은 증권업황에 비우호적 외부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만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되고 반도체/AI경기 호조로 증시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상당부분 상쇄.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에도 업황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영. 연속적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절대금리 수준이 높아진 이후 유동성 둔화의 부정적 영향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임.
- ▶ 수익성과 실적가시성, 자본안정성 측면에서 은행과 보험업종을 중심으로 긍정적 영향 전망

그림1 주요 은행 원화금리감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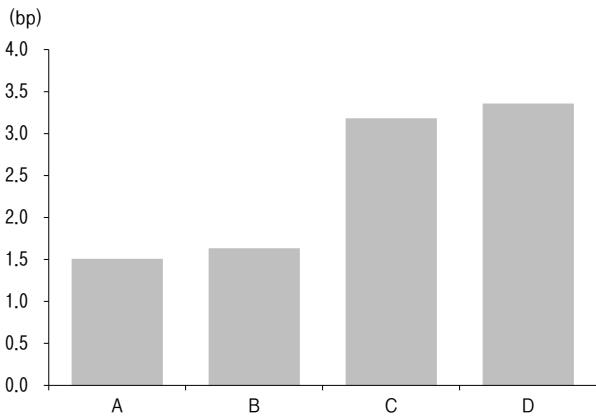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요은행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이익 영향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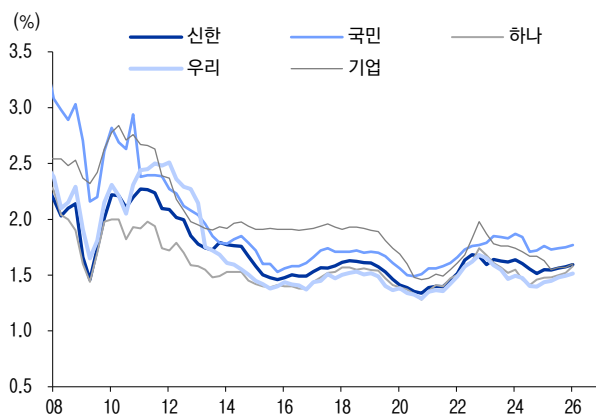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25bp 금리인상시 NIM 영향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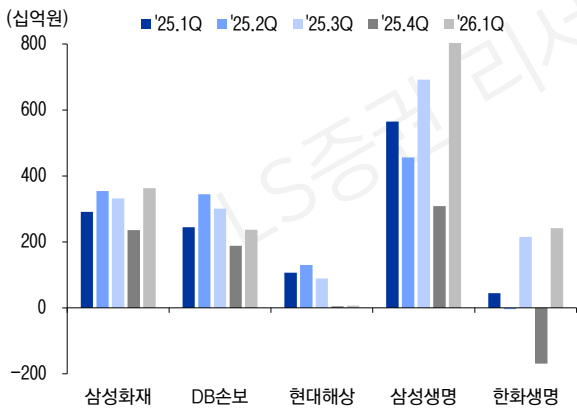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은행별 NI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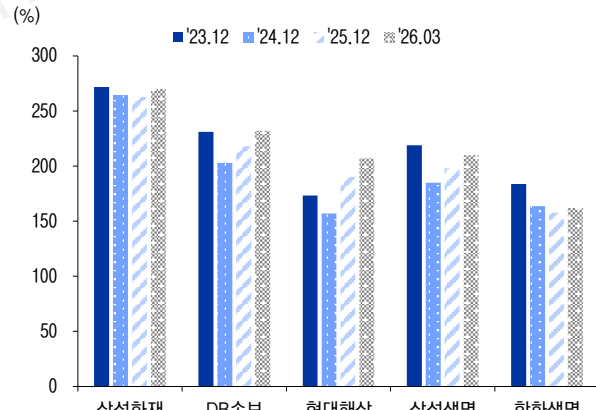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보험사별 투자손익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보험사별 익스피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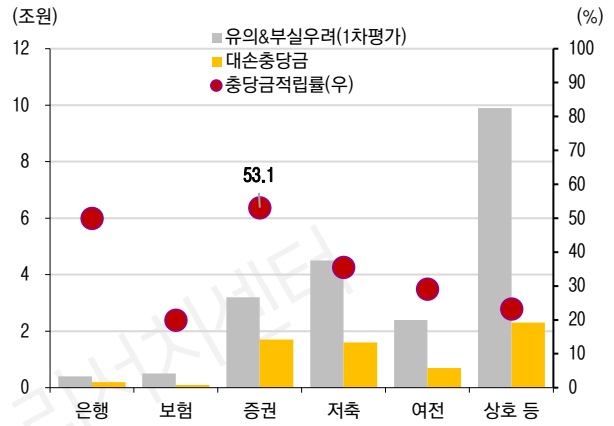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고채금리와 기준금리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총당금적립률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9.3% 10.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4. 01 ~ 2026. 0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